

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 날마다 / 예수보다 더 큰 사랑 나는 주만 높이니 / 예수가 보이네	다같이
대표기도		유준상
*성경봉독	히 10:24-25	박경준
말씀	목장사역,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며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교회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조학영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헌금안내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찬양

교회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하나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목장사역,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며 (히 10:24-25)

(24-25)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부터 청년부 Psalm 삶 공동체는 앞으로 1년 동안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뤄갈 목장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부가 목장사역을 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목장모임을 가져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는 그 태동기부터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구약의 족장시대는 가족공동체란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부장이란 소그룹 기반단위로 이뤄진 공동체였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열 두 제자와 함께 소그룹 사역을 메인사역으로 하셨습니다. 그 본을 이어받은 초대교회도 소그룹, 가정교회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소그룹의 유익은 이미 연구가 끝난 분야입니다. 20세기 후반부터 교회뿐 아니라 일반사회에서도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적으로 소그룹 시스템은 많은 연구가 있었고, 이미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열 명 내외의 사람들이 수평적 관계를 이룬 소그룹이 갖는 놀라운 효율성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그룹 모임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먼저, 소그룹은 인격적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이 관계에서는 대중 속에서는 불가능한 유대관계 형성이 가능합니다. 탄탄한 유대관계 속에서만 상처의 고백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음으로, 소그룹은 멘토링과 상호 모방을 통해 함께 배워갑니다. 소그룹이 함께 모이면 비록 전문가가 없더라도 그들 안에서 옳은 방향을 찾아가는 놀라운 자생력이 있습니다. 그 중 일부가 영적 모범이 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자극이 되어 함께 배우려 합니다. 이것을 상호 모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좋은 목장은 끝날 때가 되면 많은 목원의 삶의 수준이 함께 올라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더구나 권위주의가 해체되고, 수평적 관계성이 더욱 중시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시대 가운데 목장모임은 현대인의 영적, 사회적 필요를 채워주는 가장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익한 목장모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흔히 소그룹 모임의 3요소를 꼽으라면, 말씀, 교제, 식탁을 말합니다.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내 속에서 내면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멘토링과 상호 모방 과정을 통해서 실천적 말씀이 됩니다. 즉, 지식적 말씀이 삶의 말씀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매번 나는 것을 삶에서 살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모임을 통해 결단하고 실천해 가다 보면 어느 새에 우리 삶의 수준이 몰라보게 성장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삶을 진솔하게 나뉘야 합니다. 초대교인들은 경제 공동체를 이뤄서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습니다. 개인적 부의 축적을 포기한 이들이 모여서 나눈 것은 털끝 하나 숨길 것 없는 진솔한 삶의 나눔이었습니다. 삶을 나누기만 해도 치유가 시작되는데, 이것을 “일반화의 유익”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삶을 오픈할 마음의 준비가 되고, 함께 나눈 것을 끝까지 비밀을 지켜주며 마음으로 함께 해 준다는 신뢰가 형성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아주 민감하고 면밀하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장모임은 식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식탁 공동체는 곧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잡히시는 밤까지 식탁 교제를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초대교회도 그 본을 따랐습니다. 특히, 성전에서 말씀과 삶을 나누고, 가정을 개방해서 식탁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었기에 그토록 짧은 시간에 폭발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되는 목장모임에 임하실 모든 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는 관계적 challenge를 회피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목장 안에 불편한 사람이 섞여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 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편한 관계를 우리의 성장 도구로 활용하십니다.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의 마음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라야 나를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원래 좋은 목장보다, 서로 만들어가는 좋은 목장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전에 좋았던 목장과 비교하는것은 이를 해치는 주된 원인입니다. 처음에 어색하고 다소 실망스러워도, 함께 마음만 합치면 분명히 좋은 목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목원 모두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특히,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산책

마지막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목장모임은 그 자리를 지켜주는 분들 때문에 유지되고 발전됩니다. 가장 훌륭한 목원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 자리를 지켜주는 목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목장모임을 끈끈하게 하다보면, 내년 이맘 때에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 구원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한 단계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있는 교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를 우리 손으로 함께 만들어가고 싶지 않은가요? 우리 함께 해 나갑시다. 목장의 머리 되신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열 한 개 목장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

1. 내가 목장모임에서 바라는 가장 소중한 것은?
2. 좋은 목장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에게 바라고 싶은 한가지는?
3. 좋은 목장을 만들기 위해 내가 실천하기로 결심하는 한가지는?

성경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청년부 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안내 및 협조부탁

청년부 예배는 오후 1시 찬양이 시작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가급적 5분전까지 참석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과 조금 늦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뒷좌석 가운데쪽은 가급적
자리를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ECO 텍사스 노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도
기간: 5/28-9/24

팀원 모집

기획팀 - 행사 기획등을 도와주실 분 (문의: 정재인)
라이드팀 - 청년부 예배 전/후 교회 라이드를 도와주실분들 (문의: 장민구)
찬양팀 - 남/여 싱어, 건반, 일렉 기타, 드럼 (문의: 조학영) -----> 찬양팀 신청 QR
예배팀 - 음향/자막 팀원 모집 (문의: 박규상) -----> 예배팀 신청 QR
미디어팀 - 주보 편집에 관심 있으신 분 (문의: 안혜성)



목장 모임 제개

새로운 목장 편성으로 목장모임이 시작됩니다

Just Show Up 가을학기 모임

9/19(화)부터, 매주 화 저녁 8시 (쭈)
인도: 정동현 교수 (어스틴 신대원 신약학 교수)
본문: 마가복음 (하루 4장)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김상범 목사님, 조학영 자매에게 연락바랍니다.

일대일 인도자반 모집

9/26(화)~11/28(화), 8주, 저녁 7시경, 교회 (인퍼슨)
인도: 김상범 목사
대상: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목사님께 연락바랍니다

제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9월 24일(주일) 2부 예배 후

2023 제 3기 중보기도세미나 및 중보기도학교

일시 : 9/23~10/7 (토요일, 3주과정), 오후 2시 (2층 청년부 예배실)
홈페이지 및 로비에서 등록

2023년 AKPC 장학생 선발

대상: 일반대학/대학원생 또는 신학대학/대학원생
접수 마감/10월 22일(주일)
접수 및 문의: 교회 홈페이지(akpc.org)/장학위원회(akpc.scholarship@gmail.com)
지정현금으로 장학사업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교역자 청빙 진행중

EM college pastor/다음세대 교육총괄 디렉터 및 유년부 교역자

음악찬양부

호산나 반주자 청빙 (신청: 오늘까지, akpc-music@akpc.org)

Youth 교사 모집

Youth 사역을 사랑과 열정으로 섬겨주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 김지현 집사 (512-762-0002)

영유아부 교사 모집

한 사람의 성품과 인격의 기초가 형성되는 영유아시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로 자라나도록
사랑으로 영유아를 케어할 수 있는 청년 선생님을 구합니다.

예배 / 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1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am

토요무릎기도회

토 6:30am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종환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새가족팀장 박샤론 Sp9316@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AKPC PSALM_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에스겔 37:5

THUS SAITH THE LORD JEHOVAH UNTO THESE BONES: BEHOLD, I WILL CAUSE BREATH TO ENTER INTO YOU, AND YE SHALL LIVE.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_ 512 454 1727
FAX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FACEBOOK | AKPC 청년부
INSTAGRAM | @AKPC_PSALM

